

강진 아르크공연연습센터 공연예술 연습메카로 도약

레지던시 무료 등 공격적 마케팅 펼쳐 역대 최대 가동률 달성

강진군 대구면에 있는 강진아르크 공연연습센터가 전남 서남권 공연예술 연습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강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강진 아르크공연연습센터는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전남권 최초로 선정돼 옛 도예학교를 공연예술 연습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8년째 운영 중이다.

특히, 강진아르크공연연습센터는 그동안 저조한 이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10월 말 현재 543개 단체 6,200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 46%의 역대 최대 가동률을 기록하면서 전국 군 단위 평균가동률 수준까지 상승하며 활기를 찾고 있다.

이처럼 가동률이 급증한 것은 이용자가 연습실을 전일 대관할 경우 아예 머물면서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를 무료로 이용하게 한 담당 직원 정미선 대리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서 강진아르크공연연습센터 유휴

자원 레지던시 4개 시설을 적극 활용한 것을 비롯 올해 새롭게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홍보마케팅까지 더해 레지던시와 연습실을 함께 운영하는 타 지역 센터와 비교할 때 적극 행정의 모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도 하반기 강진아르크 연습센터에서 진행된 '강진 살자' 공연 창작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주목하기도 했다.

올해만 세 차례 이용한 '극단청자'의 임재필 단장은 "공연을 준비할 때 어려운 것이 관의 거주 단원들의 숙식 제공 부분인데 강진아르크연습센터가 중연습실의 전일 대관료 2만원 외에는 레지던시 포함 공유주방, 공유식당, 세미나실 등 쾌적한 시설 전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단원들과 밤늦게까지 기획, 대본 리딩, 동선 점검 등 연습에 몰두할 수 있어 좋았다"고 흡족해 했다.

임 단장은 "특히, 필요한 시설들이 한 공간에 갖춰져 있어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단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주변에도 사용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 풍물굿과 해원(대표 이우정), 장흥 전통우리춤(대표 안정자), 무안 바체문화예술창작소(대표 박은성) 등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 관계자들은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구상-기획-연습-실현 공연까지 일련의 과정이 선순환됨으로서 지역 예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강진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는 "강진아르크공연연습센터는 올해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험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국 공연예술 연습공간 21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의 공간에 머물면서 연습할 수 있는 센터만의 경쟁력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연예술 연습 수요를 더욱 발굴해 생활인구 적극 유치에 기여하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재)영암문화관광재단,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영암 도기를 빚다' 생활 속 예술 : 영암의 예술과 커뮤니티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암군 군서면 모정마을에 위치한 월출산도예공방(대표 정수미)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예술 프로그램인 '영암 도기를 빚다'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 영암마을 문화 커뮤니티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시유도기의 태동지인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다양한 마을 주민들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2회차로 진행되며, 1회차는 '판기법을 이용한 불접시 만들기'로 밀대와 쫄대를 활용하여 흙판으로 접시를 만든다. 2회차는 '가래 기법을 이용한 꽃화분 만들기'로 일정한 두께의 가래를 밀어 한 층씩 쌓아올려 꽃 화분을 만든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사업팀 김복을 PD는 "이번 생활문화 예술 프로그램은 마을 내 공방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생활에서 필요한 그릇과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줄 꽃 화분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생활문화 예술'을 지향하며, 영암의 지역과 마을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대 기회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포스터에 QR코드(네이버 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문의는 지역문화사업팀(☎061-471-9514)으로 하면 된다.

영암/김희선 기자

한승원 소설 '해변의 길손' 고향 장흥에서 연극으로 재탄생

장흥군은 오는 12월 4일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 한승원의 소설 '해변의 길손'을 원작으로 한 연극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기획되었으며, 한강의 부친이자 장흥 출신 문인인 한승원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무대다.

'해변의 길손'은 1988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인간 존재의 고독과 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이번 연극은 원작의 서정성과 철학적 깊이를 무대 위에서 감성적으로 풀어내며, 관객들과의 새로운 소통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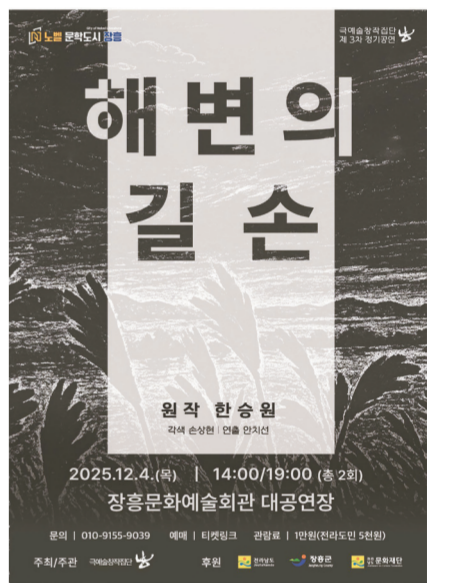
공연은 장흥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극예술창작집단 흥'이 주관·주최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협업으로 제작되었다.

공연은 오후 2시와 7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전라남도민은 50% 할인된 5천 원에 관람할 수 있다.

티켓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예매하거나, 공연 당일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장흥군 제공



'극예술창작집단 흥'은 매년 지역의 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공연을 기획·제작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향유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회원 가입 시 초대장 및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 문의는 극단 연락처(010-9155-9039)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 남구, 25일 '장애인 천상 하모니' 선보인다

제2회 장애인 예술단 정기연주회 개최

광주 남구 장애인 예술단(단장 김병내)이 겨울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천상의 하모니를 선보이는 공연 무대를 펼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제2회 남구 장애인 예술단 행복그린 정기 연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장애인 예술단 단원들이 주민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거듭난 자신들의 모습을 당당하게 알리는 무대로, 관내 거주 장애인을 비롯해 시설·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백여 명이 이날 장애인 문화예술단을 향한 뜨거운 응원을 보낼 예정이다.

정기 연주회는 90분간 진행된다.

남구 장애인 예술단 소속 그린 앙상블 팀과 그린 오케스트라 팀, 행복이음 합창

단, 뮤지컬 밴드팀이 무대에 오르며, 이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다.

첫 무대의 주인공은 그린 앙상블 팀으로, 팀원들은 5분간 '맘보+모차르트' 교향곡 연주를 선보인다.

감성 교향곡 무대가 끝난 뒤에는 행복이음 합창단 단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가곡 '낙촌'과 가요 '새들처럼'을 환상의 하모니로 전달하며 감흥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정기 연주회 후반부는 협연 무대로 채워진다.

뮤지컬 밴드와 그린 앙상블 팀은 대중가요 '아모르피티' 리듬에 맞춰 연주와 목소리의 합을 이어간 뒤 영화 위대한 쇼맨 OST 'This is me'를 협연한다.

또 그린 오케스트라 팀은 광주시교육청



소리별 앙상블과 협연해 헨델의 모음곡인 '알라 혼파이프'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8분의 6박자 춤곡인 '파랑달' 등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장애인 예술단 운영을 맡고 있는 남구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정기 연주회는 우리 단원들에게 또 한번의 도전 무대이자 기회의 장이다. 또 관객분들에게는 예술로 하나되는 남구의 감동적인 모습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남구 장애인 예술단은 각종 전국 대회에서 대상 등을 휩쓸며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명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다나인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